



임옥상

분당 율동공원 '책 테마파크' 설계·시공 맡은 임옥상 화백

책과 사람, 자연의 공생共生과 향연饗宴을 위한 공원을 꿈꾸다

2005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율동공원에 '책과 사람'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 들어선다. 경기문화재단이 사업을 대행하고 임옥상 미술연구소가 설계·시공하는 1,800여 평 규모의 책 테마파크에는 인터넷상으로 각종 장르의 작품을 읽고 감상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청각실과 자료실, 이벤트·전시공간은 물론, 책을 주제로 한 벽화와 조형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당 책 테마파크의 설계와 시공을 맡은 임옥상(56) 화백을 만나보았다.

“공원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넘어 서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모양새만 겨우 갖춘 공원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더욱이 어린 이공원을, 놀이시설이나 몇 개 갖추면 그만인 정도로만 여긴 듯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화가 나다 못해 신경질이 나더군요.”

그는 도시의 공원에 관심이 많다. 고작 해야 꽃나무 몇 그루에 벤치가 전부인, 형식적인 공원문화에 아쉬움이 많았기에 줄곧 ‘주제와 색깔’을 지닌 공원에 대해 생각해 오던 터. 지난 4월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행한 책 테마파크 설계 공모전에서 그의 설계안이 채택되면서, 그는 지금 창조적인 공간으로서의 공원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테마파크 설계도의 밑그림은 “땅 위에 책을 한 권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다. 건축가 승효상 씨와 조형설계사 김인수 씨가 뜻을 모았고, 거기에 김정환 시인이 합류했다.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통찰이 담긴 공원을 만들고 싶었던 임 화백이 평소 알고 지내던 김정환 시인을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사회 지도계층이나 지식인들의 지식 기반이 두텁고 탄탄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봐요. 분당에 책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인문사회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떠올렸고, 컨셉트를 기획하는 시점부터 김정환 시인과 함께 했습니다. 김 시인과 같이 작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평소 그의 방대한 지식을 존경해 오던 터라 매우 행복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분당 책 테마파크 설계안의 제목인 ‘책, 세상의 배꼽’은 김정환 시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배꼽은 모체와 태아 사이를 연결하는 에너지의 통로이자 유전 및 면역체계의 통신망이라 할 수 있는 탭줄이 퇴화한 흔적이며, 동시에 어머니와 나, 우주와 나를 잇는 흔적이 아니던가. 이런 의미에서 책

을 ‘세상의 배꼽’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배꼽’으로서의 책을 테마공원 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일단 책 테마파크는 공원 초입에서 이어지는 나선형 길을 따라 높이 5.5미터의 정상으로 올라가 지하로 내려간 뒤, 다시 원형광장으로 나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나선형 길은 미로迷路를 표현한 것인데, 책의 탄생이 미로와 같다고 본 것이죠. 책을 읽는 행위는 목표 내지는 궁극의 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미로에서 출구를 찾는 행위와도 닮았습니다.”

공원 초입부터 길게 이어지는 벽에는 ‘책의 탄생’을 주제로 한 벽화와 부조작품을 통해, 문자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 종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책의 미래 모습에 이르기까지 책의 역사를 표현할 계획이다. 책을 형상화하려는 노력은 치밀하게 이어진다. 야외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원형광장은 책의 고향, 생명의 근원인 자궁, 그리고 평화의 블랙홀을 상징한다. 공원에는 책 모양의 연못을 갖춘 명상공간과 활자가 새겨진 브론즈 조각 작품, 그리고 조형벤치가 설치된다. 조형벤치에는 김정환 시인이 지은 ‘新천자문 8행시’가 한자, 한글, 영자로 새겨질 예정이다. 이번 책 테마파크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대지 위에 쓰고 그린 한 권의 책, 한 점의 그림과 같은 공원을 만들자는 것과 건축과 미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발상을 하자는 것, 그리고 공원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큰 구상은 나왔고, 점차 세부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는중인데, 책 테마공원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고, 어렵다 못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며 웃어 보인다. 그가 꿈꾸는 공원은 무작정 앞만 보고 걷는 공원이 아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벤치에 새겨진 시를 찾아 읽고, 연못에 비친 구름을 내려다보며 명상에도 잠겨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다.

“인간이 건축을 만들지만 건축은 다시 인간을 만든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과 도시와 같은 삶의 공간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지요.”

도시, 공원, 자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그는 작년에 창립한 사단법인 문화우리에서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문화우리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문화, 환경, 공간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제 그림세계가 확대됨과 동시에 장르를 이리저리 뛰어넘다보니 문득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놈의 문화?’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미 하나의 문화이고, 결국 삶 속에서 문화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예술가, 모든 사람들이 사회변혁가가 되어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임옥상 미술연구소를 통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뒤뜰에 ‘책’을 테마로 한 야외쉼터와 독서실을 만들어 주었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이들의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꿈꾸는 책뜰”이라는 예쁜 이름도 붙여 주었는데, 책과 어린이 문화공간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시에서 공원은 광장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집 밖을 나서면 변변한 산책로 하나 찾아보기 힘든 도시에서 잘 가꾸어진 공원은 쉼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책 테마공원이 책과 사람,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즐거움을 주고받는, ‘공생共生과 향연饗宴’의 공간이 되기를, 거기서 자연을 느끼며 책과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자기를 발견하는 도시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한문**

취재 류은영(객원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